+

광주시장·전남지사 "지방 재정분권 강화" 한목소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姜 "수도권서 먼 지방 두터운 재정 지원" 金 "지방소비세 확대, 수도권 편중 심화" 李대통령 "지방자율재정 예산 대폭확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재 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 회의에서 한목소리로 지방 재정 분권 강화 필요 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 의'가 12일 대통령실에서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등 3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강기정 시장은 합리적인 지방재정 분권 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지방재정분권 주제 토론에서 "과거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재정 형평화를 이유로 ▲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 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 ▲비수도권 도의 3단계로 구분한 배분 방식은 결국 광역시가 소 외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의 현행 지방소비 세율 배분 방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3단계 배분 비율을 개선해 수 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로 하되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도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 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 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 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 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 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 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김 지사는 "시·군은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악화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수도권 편 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가장 합리 적 재정분권 제도"라며 "교부세율을 높이면 비 수도권 시·군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지방재정이 보다 고르게 분배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 자립 기반의 확충" 이라며 "이번 재정분권 논의가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진정한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며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 방이전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 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수 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 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지방 자율재정 예 산 규모를 3조8천억원 가량에서 약 10조6천억원 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 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 다"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 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 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변은진기자

광주 전역 '규제프리 실증도시' 조성 제안

姜시장, 하정우 AI수석 면담 '공감대' "대통령, 광주 AI중심도시 의지 확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하정우 대통령실 인 공지능(AI)수석을 만나광주전역을 'AI산업규 제프리실증도시'로조성하는방안을제안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AI 인프라 구축, 인재 양 성, 기업 유치를 기반으로 AI 실증도시로 발전해 왔다. 이제는 도시 전체를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전환해 NPU, AI 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인 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실증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광주 전체 를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정우 수석은 '규제프리 실증도시 조성 제 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광주가 그동안 축적 한 AI산업 생태계를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하 수석은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와 관련, "민간 영역으로 개입 여지가 크지 않았지만 광 주가 노력해 구축해온 AI산업 생태계를 긍정적 으로 평가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지역민들의 실 망이큰것같아송구한마음"이라고말했다.

이어 하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광주 를 AI산업의 중심이자 AI선도도시로 만들어 가

야한다는확고한의지를갖고있다"고전했다.

특히 하 수석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2025 서울미래컨퍼런스-AX 시티와 6G, 한국형 미 래도시 포럼'에서 강 시장이 제시한 ▲NPU전 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국가AI연구소 광주 설립 ▲AI+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메가샌드 박스형 국가AI집적단지 지정 등 'AI 실증도시 광주'4대 전략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강시장은 "국회예산심의 과정을 포함해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광주가대한민국 AI산업을선도하는규제프리실증도시로도약할수 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 /변은진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항소 포기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 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 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결국 물 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 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 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으로 알려졌다.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 (검사장급), 일선 검사장들 사이에서도 사퇴 요 구가 터져 나왔다. /연합뉴스

조명탑 없는 무등경기장 '반쪽시설' 전락

조석호 "490억 리모델링 야간 사용 불가"

49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광주 무등경기장 이 조명탑이 없어 야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지 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4)은 12일 문화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등경 기장은 생활체육과 유소년 스포츠의 중심지이지 만 조명탑이 없어 야간 사용이 불가능해 사실상 반쪽짜리 체육시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근폭염 일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간 경기진행이어렵고열사병위험과경기취소·대회 축소 시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프로 야구연맹조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시 작시간을 늦추는 추세인데 광주는 여전히 주간 경 기만가능한구조를고수하고있다"고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경기장은 임동리버파크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 중심에 입지돼 있어 야간 경기 시 빛공해·소음 등 민원 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조명탑 설치를 제외했 다"며 "야구장 주변 거주민의 주거권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최소화가 가능한 기술적 방안을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겠 다"고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 선박수리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道·해경정비창워크숍기업육성등논의

전남도와 해양경찰정비창은 12일 "김원이 국 회의원을 비롯해 전남도의회, 해경정비창, 조 선산업 혁신기관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 운데 지역 수리조선산업 활성화와 상생협력 방 안을 주제로 한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고 밝혔다.

워크숍에선 해경정비창 개창이 지역 경제

에 미칠 영향과 공동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 다.

해경정비창은 국가 해양안전과 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함정 정비 전문기

이번에 건립된 해경정비창은 목포 신항만 허 사도 3만8천평 부지에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사업비 2천583억원이 투입돼 신설된 최신형 정 비창이다. /양시원기자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650-2022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 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 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 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 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활희 062)222-1095, 1096

문 의

대명OA

취/급/품/목

- 목사기□ 컴퓨터□ FAX
-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져(토너/드럼)
- 카트리지
-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 대 ■ A/S

T.375-5880

[감정가 이하]

○ 감정가6억2,000 == 급매4억1,000 임동5거리 대로변8층135평(바로입주가능) [시세반값 급매물]



- 백운광장 대로변코너 상업지289평(분할가능)평당1,600
- 법원앞 대로변코너 전철역입구예정지 대지283평 평당1,200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순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시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쌍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 010-8678-4638